

국제



6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부인 미셸 오바마, 러닝메이트였던 조 바이든 부통령 부부와 환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들어 지지자들에게 화답하고 있다. (사진=미국 민주당 홈페이지)

‘승부처’ 플로리다 수차례 50%대 50%

■ 美 대선 역전·재역전 숨막히는 개표전

초·중반 롬니 우세, 후반 오바마 역전승

6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의 개표전은 마지막 순간까지 벅락 오바마 대통령과 롬니 공화당 후보가 역전에 재역전을 반복하는 숨막히는 승부로 전개됐다. 특히 플로리다주에서는 두 후보가 계속 3%포인트 이내에서 엇치락뒤치락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였으며, 수차례 50% 대 50%의 동률을 기록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지난 2008년 대선에서 개표 초반부터 존 매케인 공화당 후보를 비교적 큰 격차로 이기며 ‘낙승’을 거뒀던 오바마 대통령으로서의 시종 손에 땀을 쥐게하는 5시간이었다. 오후 6시~8시=오후 6시(한국 시각 7일 오전 8시) 첫 개표가 시작된 인디애나, 캔터키 등 2개주에서는 예

상대로 일찌감치 롬니 후보의 승리가 점쳐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1시간 뒤 3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된 버몬트주를 차지하면서 ‘첫승’을 신고했으나 조지아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붉은색(공화당 상징)으로 장식되면서 롬니 후보의 우세가 이어졌다. 같은 시간 플로리다, 버지니아 등 2개 조정합주의 개표가 시작됐으나 CNN, 폭스뉴스 등이 “예측할 수 없는 초접전(Too close to call)”이라고 보도하면서 두 진영을 긴장케 했다. 이어 두 후보가 이번 선거기간에 가장 공을 들였던 오하이오주는 7시 30분 개표가 시작된 이후 오바마 대통령이 졸권 안정적인 우위를 유지했으나 역시 마지막까지 접전 양상을 이어갔다.

오후 8시~10시=오후 8시부터는 개표 초기에 열세를 보였던 오바마 대통령의 ‘대반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치적 고향인 일리노이주에서 2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롬니 후보가 주지사를 지냈던 매사추세츠주에서도 14명을 가져왔다. 수도 워싱턴DC와 메릴랜드주, 로드아일랜드주 등에서도 여유있게 앞섰다. CNN방송은 오후 8시 30분께 오바마 대통령이 64명, 롬니 후보가 56명의 선거인단을 각각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어서 CNN방송이 위스콘신주와 아이오와주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를 선언하면서 승리는 거의 굳어지는 듯 했고, 언론들이 거의 동시에 ‘오바마 재선 성공’을 긴급 타전했다. 대표적인 진보성향 매체인 MSNBC는 오후 11시 15분께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예측보도했으며, CNN방송과 폭스뉴스, AP통신, AFP통신 등도 잇따라 ‘오바마 승리’를 선언하면서 5시간의 ‘덥고 긴’ 개표전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연합뉴스

이로써 롬니 후보가 158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오바마 대통령(143명)을 계속 앞서나갔다. 그러나 같은 시간 경합주 가운데 하나인 뉴햄프셔주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다. 승부는 오후 11시(한국 시각 7일 오후 1시)에 갈라졌다.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배정된 캘리포니아주가 예상대로 오바마 대통령의 몫이 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매직넘버’는 32명으로 줄어들었다. 이어 CNN방송이 위스콘신주와 아이오와주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의 승리를 선언하면서 승리는 거의 굳어지는 듯 했고, 언론들이 거의 동시에 ‘오바마 재선 성공’을 긴급 타전했다. 대표적인 진보성향 매체인 MSNBC는 오후 11시 15분께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예측보도했으며, CNN방송과 폭스뉴스, AP통신, AFP통신 등도 잇따라 ‘오바마 승리’를 선언하면서 5시간의 ‘덥고 긴’ 개표전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연합뉴스

이제 대선 고지를 밟은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하면서 북핵에 ‘옴은 선택’을 촉구하는 투트랙 전략(압박과 대화 병행)을 실천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또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이 속해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외교의 중점 축으로 삼겠다는 새로운 외교 전략(Pivot to Asia)을 지향한다. 그 중심과제는 역시 미국과 함께 국제사회의 G2(주요2개국)로 부상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이며, 이 과정에서 핵심 동맹국인 한국의 존재감은 더욱 드러나겠다. 같은 대선 고지를 밟은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하면서 북핵에 ‘옴은 선택’을 촉구하는 투트랙 전략(압박과 대화 병행)을 실천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동맹 유지속 대북정책 ‘호흡맞추기’ 과제

■ 오바마2기 행정부 한반도 정책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성공으로 미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은 현재의 골격을 유지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관계가 ‘가치동맹’을 언급할 정도로 우호적이긴 하지만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또 북한 문제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수용해온 오바마 행정부의 행태를 감안할 때 대북 정책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물론 내달 치러질 한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한미 관계의 미세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다.

특히 한국의 유력 대선후보들이 당을 불문하고 남북관계가 악화해온 현재 상황을 타개하거나 개선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호흡맞추기’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역할을 그 누구보다도 중시해온 점을 감안하면 동맹관계의 강화를 기본 토대로 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은 물론 군사 분야의 핵심 현안과 인적·물적 교류 확대 등 현역의 양국관계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죽집게’ 리히트먼 교수 또 맞혔다

오바마 재선 예측... 美 대선 결과 8번 맞췄

6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박빙의 승부를 펼쳐 재선에 성공한 가운데 미국의 정치학자 앨런 리히트먼 교수(Allan Lichtman·아메리칸 대학·사진)가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다.

지난 6월 주한미대사관과 광주 YMCA 무진관에서 열린 ‘미국 대통령 선거와 민심읽기’ 특별강연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예측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984년 이후 치러진 7번의 미국 대선결과를 정확히 예측해 ‘미스터 죽집게’(Mr pin pointer)로 불리고 있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으로 그는 8번째 미 대선결과를 맞춘 진기록을 세웠다.

그가 대선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저서 ‘백악관으로 가는 열쇠’(The Keys to the White House)에서 선보인 예측모델 덕분이다. 지난 1981년 지진예측의 세계적 권위자인 블로치아 케일리 스 북쪽 교수와 함께 ‘정치적 지



는 열쇠’(The Keys to the White House)에서 선보인 예측모델 덕분이다. 지난 1981년 지진예측의 세계적 권위자인 블로치아 케일리 스 북쪽 교수와 함께 ‘정치적 지

진’인 선거에서 현 정부가 유지되는 것을 ‘안정’에, 정권이 바뀌는 것을 ‘격변’으로 해석하는 가설을 세워 1860~1980년 사이 120년동안 치러진 모든 대선 통계를 토대로 대선의 향방을 결정짓는 13개의 변수를 추출해냈다. 의회장과 당내경쟁, 현직프리미엄, 제3의 정당 출현가능성, 장·단기적 경제상황, 정책변화, 사회적 불안정, 정권 스캔들, 외교·군사 분야의 실패 및 성공, 카리스마, 도전자의 카리스마 등이 그것이다.

그는 지난번 광주 강연회에서 “1984년부터 13개 변수 중 6개 변수 이상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은 현직 대통령은 모두 재선에 성공했다”며 “오바마 대통령도 13개 요소 중 9개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재선이 확실시 된다”고 역설한 바 있다. /박진희기자 jhpark@kwangju.co.kr

중국 시진핑 시대 개막

오늘 18차 당대회서 총서기 선출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를 선출하게 될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8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됐다.

오늘 14일까지 이어지는 당 대회에는 총 8260만 2000명의 당원 가운데 뽑힌 2270명의 대표가 참석, 18기 중앙위원 200여명과 중앙후보위원 160여명을 선출하게 된다. 홍콩 명보(明報)는 이번 당대회에서 현재 중앙위원 202명 중 100명 정도가 유임되고 나머지는 새로운 얼굴로 바뀔 것이라고 전했다.

새로 선출된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360여명은 당대회 폐막 다음날인 15일 18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8기 1중전회)를 열어 중국 최고 권력기구인 정치국 위원과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임한다.

이들 가운데 중국은 제5세대 지도부가 정식 출범하면서 10년 만의 권력교체를 이루게 된다. 상무위원은 7명이 선출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9인이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번 당대회 및 18기 1중전회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1인자인 총서기 자리에 오르게 된다.

아울러 리커창(李克强) 부총리가 상무위원 자리를 유지하고 왕치산(王岐山) 부총리, 장더강(張德江) 총칭 서기, 장가오리(張高麗) 텐칭 서기, 류인산(劉雲山) 당 중앙선전부장이 상무위원 진입이 유력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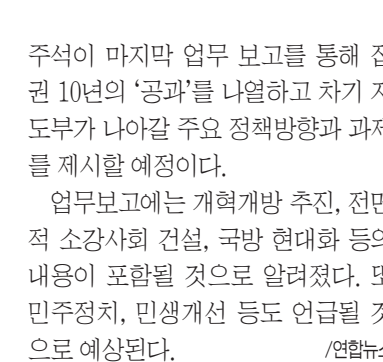
또 위정성(俞正聲) 상하이(上海) 서기, 리위안차오(李源潮) 당 중앙조직부장, 왕양(王洋) 광둥성 서기 등이 나머지 한자리를 놓고 경합하는 구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시진핑이 총서기로 선출되고 집단지도 체제를 이끌어갈 나머지 상무위원들이 결정되면 중국의 권력은 세대도부에게로 넘어간다.

다만 시진핑은 내년 3월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주석으로 선출될 예정이어서 공식적으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원자오(溫家寶) 총리 체제에서 시진핑 주석-리커창 총리 체제로 탈바꿈하려면 내년 3월까진 기다려야 한다. 이번 당 대회에서는 후진타오 국가

중국 권력교체 서막 시진핑은 누구인가

Table with 2 columns: Year and Event. Lists key moments in Xi Jinping's career from 1953 to 2012.



주석이 마지막 업무 보고를 통해 집권 10년의 ‘공과’를 나열하고 차기 지도부가 나아갈 주요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업무보고에는 개혁개방 추진, 전면적 소강사화 건설, 국방 현대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정치, 민생개선 등도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Real estate advertisement grid with 10 columns. Each column contains a title, a brief description of services or properties, and contact information (phone numbers, website). Columns include: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현대공인중개사, 금당 공인중개사, 신한공인중개사, 초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상무랜드공인중개사, 대인등삼일부동산.